

# 성서번역을 위한 해석학적 긴장 문제

이상훈

(개역개정감수위원장 신약학)

## 1. 들어가는 말

건전한 기독교인의 성서 이해는 성서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시하여 주신 영적 진리이며 그것은 공교회의 규범 되는 유일한 증거이다. 이러한 성서의 성격과 비교될 만한 다른 유추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 저술에 속하는 그 어떤 문헌과 저술도 이 성서의 권위를 능가하거나 대치하지 못한다. 심지어 인간 사회의 신앙 문제와 도덕 문제에 대하여 절대로 신뢰되는 선언을 로마의 감독이 위임받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카톨릭 교회도 교황이 결코 성서의 권위 위에 있지 않으며 또한 성서의 교훈을 부정하지 못한다.

## 2. 성서에 대한 세 가지 기본 전제들

그러나 성서가 어떠한 의미에서 “규범적, 집합적 증언”인가 하는 성격 해석에 있어서는 견해 차의 골이 깊다. 이러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 세 가지이다.

### 2.1. 성서는 여러 차이 있는 시대에 생존한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경험을 집필한 문서들의 한 수집이다.<sup>1)</sup>

---

1) 이와 같이 예민한 문제의 불필요한 오해를 생략하기 위해 정확한 뜻을 영문으로 표기한다. The Bible is a collection of documents written by people at different times to describe their experience of God (참조. Gerald Bray, *Biblical Interpretation, Past and Present*, 1996, p.19-)

이러한 해석의 입장은 저술 과정에 있어서 영감이 동반되는 경험을 언급한다. 그러나 그 영감은 저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저술이 된 것이 여러 세기를 걸쳐 발전하며 상당히 다듬어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성서 안에 신앙의 전통은 존재하나 그러나 내용적인 불일치는 영적 발전이라고 하는 통제 원리에서 판단한다. 이러한 차원에서의 텍스트는 역사적 내지는 문화적 요소를 근거한 조화를 추구한다고 해도 상반된 충돌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시대마다 드러나는 갈등과 충돌의 예는 우선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과 신약의 공훈의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간극,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말한 바울과 행함으로 구원이라고 주장한 야고보 신학의 격차이다.

## 2.2. 성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기록이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바의 기록이다<sup>2)</sup>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완전하고 그리고 그 자체는 무오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성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감된 진리를 말씀하시나 그러나 그 말씀이 인간의 문서로 남아 있으므로 인간의 문학 형식은 무오의 것이 아니다.<sup>3)</sup>

성서영감론 해석에 관한 보수복음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계시 전달의 방법은 그 자체가 친히 하나님이 공훈로 택하신 맥락이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 능력의 한계성에 “스스로 적응하신”<sup>4)</sup>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런 결과로 인간의 오류와 부정확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와 증거하는 바가 진정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 경험임을 완전하게 알려주는 텍스트이며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다. 구체적인 예로 예수의 고난에 관한 네 복음서의 차질은 복음서 저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문장을 베껴 쓴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공통적 사건을 각자의 독자적인 증언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참

2) The Bible is a record made by people who heard God speaking to them and who recorded what they understood(*Ibid.*, p.20)

3) "because it remains a human document, it is not a faultless witness"(*Ibid.*, p.20)

4) "accommodated himself to the limitations of human understanding" (*Ibid.*, p.20)

으로 신뢰가 가는 증언이다.

### 2.3. 성서는 인간 대행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sup>5)</sup>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 대행자가 받아 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 그러나 종종 인간 대행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비의(秘意)스러운 메시지를 받아 기록하였다. 이러한 비밀스러움은 특히 예언과 관련하여 그렇다. 예를 들어, 구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하였으나 원초적 집필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예를 들면, 예수의 영광된 재림을 말씀하고 있으나 우리 독자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성서의 본문에 일체의 차질과 모순이 있을 수 없고 다만 후대의 필사의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최초의 원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언사이며 따라서 그 텍스트가 의도하며 전하려고 하는 비가류적(非可謬的)이고 그리고 무오(無誤)이다. 우리가 성서의 내용에서 모순과 갈등의 사례를 만나게 되면, 갈등이 아니라 파라독스라고 해석을 한다. 구약과 신약의 간극은 양편의 내용에 모두 나오는 ‘공의’와 ‘공홀’로 해결이 된 것으로 끝내며, 그리고 바울의 믿음과 야곱의 행함의 갈등 역시 성도의 신앙과 삶의 기조가 믿음임을 바울과 야곱이 모두 인지하였으므로 오해에서 분산이 된 분류라고 생각을 한다.

위의 세 가지 입장의 성서관에서 첫 번째의 것은 대체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구분을 한다<sup>6)</sup>.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름은 자유주의자라고 구분되는 입장에서 있는 학자들에게 부당한 이름이라고 불만일 것이다. 본래 이 이름은 극단적인 회의주의 사상을 취한 특정 학파가 출현했을 시의 이름이면 그들의 활동은 19세기가 전성기였고 그후 그 특정 학파는 몰락하였다.

지금도 그들의 과격한 비평 기질을 그대로 이어서 성서는 인간의 문서일 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선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기본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은 비록 광범한 다양성임에도 결국은 성서가 인간의 고전일 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전제는 용하게 판단이 된다.

5) "The Bible is a Word from God given through human agents."(*Ibid.*, p.20)

6) *Ibid.*, p.21.

이러한 과격한 비평의 입장은 언제나 새로운 견해에 대하여 민감하고 그리고 교회의 통제나 경건한 신도들의 간섭을 벗어나 즉각 수용하는 편의로운 입장이다. 심지어는 성서의 맥락을 이탈한 이차적인 해석도 마다하지 않는 수용 자세 때문에 그들이 중히 여긴다고 하는 과학적 탐구의 기본 원칙도 넘어서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이 자유주의의 입장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 견해들의 난조(亂調)에서 노출이 된다. 현금의 박사 학위 논문 중에서 현대주의의 견해처럼 매력 있는 비판 대상은 없는 성싶다. 대체적인 교회 신도들이 이러한 현대 이론을 불신임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의 전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견해는 많은 초기 교회의 위대한 보수주의 해석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근자의 개신교 개혁주의 학자들이 언어적 문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문자적으로 텍스트를 비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견지에서 이 두 번째의 입장을 유약한 입장이라고 거부하여 왔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입장은 현금 보수적 가톨릭교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 사이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오늘의 성서 해석학은, 텍스트를 확립하는 방법으로서 본문 비평의 방법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지만 신중한 방법을 취하며 전통적 교회 보수신학의 궤도를 고수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최근의 해석학적 시도에 관하여 저널리즘이 비아냥거리는 평으로 신앙 생활의 정서는 그 바탕이 제삼의 보수 입장인 반면 학문적인 요구에서는 제일의 입장에 가까운 지질이라고 꼬집는다. 그러나 이러한 중용적인 성서 해석의 입장이 현대 사회에 일찍이 없었던 강력한 변증 신학으로 등장할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호한 연골신학(軟骨神學)이 되어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 못할 앞날의 숙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제이의 입장이 막중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경건 신앙의 범주와 학문적인 요구를 양편 어느 것도 해치지 않으면서 활동이 자유롭다고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학문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과격한 세속적 지향을 제재하면서 또한 분석과 탐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반 학문적 보수주의를 온건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용적 입장에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양자에게 협력이 아니라 과격한 비평주의적 행태나 폐쇄적 경건주의의 양극단 어느 한쪽으로 기울고 마는 단절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용 지대는 정체론적으로 시비가 된다. 그러나 가장 실망스러운 도전은 성서 해석학자가 아니

라 경성(硬性)의 신학 명분을 전제하는 조직신학에서 온다.

제삼의 입장은, 반 학문의 경색된 신앙이라고 하는 고립과 도전을 무릅쓰고라도 근본주의를 고수하려고 하는 선택의 입장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제와 명분이 있으면 족하며 일체의 방법론적 학문의 조명을 사양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시야에서는 여전 하나님은 4004년 전에 인류의 시조를 처음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요일이 일곱 번 지나는 것과 동일한 추리에서 안식일에 해당하는 7000년의 역사로 인간의 역사는 마감한다고 하는 골격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래의 경직된 집념이 최근에 이르러 이 근본주의 신앙을 직선적으로 고수하는 회중과 학문과 신학의 탐구로 훈련받은 교수와 학자들과의 사이에 미묘한 분사선적 현상(分射線的 現像)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삼의 입장이 고수하는 최후의 보루인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교회사적으로 일관성 있는 보수 신앙, 그리고 성서가 하나님의 권위로 보장이 된 말씀(벧후1:21, 딤후3:16)이라는 견해이며, 지성적인 조명과 분석은 왔다가 간다고 하는 신념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주장의 최대의 약점은 과거의 지식을 고수하고 오늘의 다수의 관심을 외면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 그들의 좋은 경건 신앙은 보다 넓은 세계를 향한 열린 대화가 없어도 가하다는 것이다. 나는 경건한 신앙을 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한 좋은 신앙을 떠받들고 있는 해석학적 기초로서의 폐쇄성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이기적으로 점유하여 오늘의 다수에게 공개 말아야 한다고 하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시에 주신 선교 대명과 정면에서 충돌하는 고집이다. 그럼에도 다수의 회중이 이런 입장의 진영으로 모이는 이유는 이 제삼의 입장이 타성적이라고 해도 역사적 전통 차원에서 성서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내면적인 가치 때문이다.

오늘의 해석학적 기상(解釋學的 氣象)을 살펴볼 때에, 어느 누구도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성서 이해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설혹 단순하게 판단하는 셈치고 개략적으로 비교하면 위의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제일과 제이의 입장이 다수의 해석학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이의 입장은 확실한 보수성으로 비평적 복음주의에서 널리 인정이 된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내부에 눈을 돌리면, 제이와 제삼의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그들을 쉽게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제이의 입장이 교회 내에

서 제삼의 입장과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으로 상극처럼 맞서 있는 제일의 입장과 제삼의 입장을 다리 놓아 중재하는 해석학적인 중재가 점점 가능한 것으로 주목을 끌기 시작한다.

### 3. 성서 해석이 제기하는 영원한 긴장

성서 해석의 작업에서 어느 시대나 비록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항상 다시 일어나는 문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는 매우 중요하다. 성서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에 관여하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긴장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긴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3.1. 이러한 긴장의 첫 번째의 것은 조직적이며 학문적인 해석과 비조직적, 비학문적인 다시 말하여 일반적인 성서 이해와 사이에 있는 긴장이다.

우선 성서 해석의 과제는 전문적인 학자들의 몫이다. 저자의 의도를 밝혀내고 맥락과 문장과 어법의 영역에서 바른 의미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실성과 관계없이 지금까지 성서를 읽고 친숙한 일반 회중은 기왕 수용한 의미와 별나게 차이가 일어날 때 학자연하는 주장에 의혹의 눈으로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긴장은 초입 단계의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흥 전도자들이 가령 요한계시록 3장 20 절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를 맥락을 이탈하여 전도를 위한 구호나 호소로 잘못 사용하거나, 요한삼서 2절에 나오는 편지의 인사말 “네가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를 맥락과 상관없이 사업상의 번영과 재정의 축복으로 응용하는 일들에서 예로 들 수 있는 것과 같이, 부흥 전도에서 비전문적인 전도자가 회중의 성서 이해의 수호자 격으로 다수 일반의 집체의식을 결정하여 성서해석자들의 성실한 좋은 해석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긴장의 종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문화 유산으로 귀중시 하는 미술이나 클래식 음악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성서 해석들 사이에 긴장이다. 가령, 단테의 지옥의 묘사, 밀톤의 인간과 천사의 타

락 이야기, 헨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구약의 기독교적 해석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들의 명작에 기초에 깔린 비전문적인 성서 해석은 오랫동안 일반 성도의 영혼에 깊은 메아리를 일으켜 온 애정의 대상이다. 19세기초에 결별한 성서의 비유 해석은 지금도 살아 있어 특히 찬송가와 흑인 영가나 찬양 송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서 해석과 관련하여 그 작업이 아무리 성실하고 좋은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우수한 박사 학위의 논문보다는 상술한 비전문적인 성서 해석이 일반 성도들의 집체의식(集體意識)을 더 직접적으로 형성시켜 놓는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과 이와 같이 집체의식의 밑바닥에 한 번 깔린 고정 의식은 좀처럼 교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성서 해석자들은 알아야 한다.

3.2. 위의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이번에는 학자들 편에 항상 정리되지 않는 석의와 자기 의견의 투입(投入)이라고 하는 재해석과의 간극에서 빚어지는 긴장이다.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성서 해석자들도 자칫하면 성서의 저자들의 의도와 상관없는 견해를 텍스트에서 도출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는 의례히 교단의 교리나 자기가 선택한 입장에 유리한 전제를 통하여 성서의 맥락과 텍스트를 해석하기 때문에 원초적인 저자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결론을 내리고 만다. 고전적인 범례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나오는 별세한 자들을 위한 세례나, 여성은 남자들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언급한 다양한 텍스트(고전11:3; 딤후2:11-15)를 해석할 때 바울이 놓인 당시의 상황적 내지는 그 교회의 직접적인 맥락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교회의 규범으로 결정내리는 경우가 그렇다. 최근에 와서는 잠시 언론을 확대아오르게 만든 ‘바이블 코드’식의 성서의 비밀 해독에는 셰익스피어나 아인슈타인이나 케네디 등이 그 곳에 예언으로 나온다고 하는 석의 시장 경계를 염두에 둔 자기투사(自己投射)에서 그런 탈 맥락의 극단적인 경우를 여전히 보는 것이다.

설교자가 명제 설교를 집착하는 나머지 맥락과 상관없는 무리한 석의로 설교를 전개하는 경우나 교회의 다른 문화 행사에서 그 의의를 높이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장식처럼 소개하는 그런 타성의 유혹을 자제하기란 용이하지 않다고 오랜 경험은 충고한다.

3.3. 세 번째의 긴장은, 다양성에 대한 학문적인 수용이 내면적인 통일성보다 더 중시하는 분석주의 위주의 성서 연구의 집착에서 온다.

자칫 이런 집착은 전체를 통한 저자의 의도를 놓치기 쉽고 부분적으로 표시된 다양성만을 고집하는 아톰주의에 빠져들게 한다. 그리고 지금의 텍스트를 발전사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단정하여 텍스트 이전의 자료에 연연하여 역사 이전의 가정을 중시하는 나머지 지금의 텍스트를 과소평하고 확실하지 않는 가정에 지나친 무게를 두는 편견은 성서 해석을 위한 또 하나의 긴장 관계를 제기한다<sup>7)</sup>. 그리하여 성서 자체와는 유리된 신학과 철학 원리의 조직적 발전이 돋보이게 한다. 가령 빠트는 자타가 인정하는 거목과 같은 서신 학자이지만, 그의 필생의 저작인 교회교의학 안에는 성서 석의와 텍스트의 사용이 너무나 산만하여 놀라게 된다<sup>8)</sup>

위에서 말한 대로, 분석적 연구의 결과가 각기 개성적인 다양성의 제시일 뿐 일치성의 상실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양상은 바로 오늘의 주로 분석적 비평적인 연구를 위주로 하는 성서 연구의 가장 큰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포함하여 지금에 이르러 역사적 성서비평학은 문학적 연구 또는 “이야기” 비평학 같은 방법론에 의한 협력력이 없이는 빠져 나오기 곤란한 미로에 들어섰다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같은 목소리이다.

3.4. 네 번째 그리고 끝으로, 텍스트와 컨텍스트 즉 본문과 정황의 양자 관계가 빛는 긴장이다.

텍스트의 역사적 연구는 원저자의 의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불가피한 방법이다. 그러나 원저자가 저술 목적을 명시한 것이 아니면 역사적 탐구의 결과는 결국 단언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최초의 독자와 공동체의 응답을 확인하는 작업 역시 최초의 독자가 하나만의 인격집체인지 아니면 여러 개체의 공동체인지 확실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역시 벽에 부딪치게 한다.

7)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p.48.

8) Gerald Bray, *Biblical Interpretation, Past and Present*, p.42.



본문 정황의 연구는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목적을 위하여 매우 유효한 방법이나 그러나 언제나 부동의 결론으로 단언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성서 해석의 최종 기준은 아니다. 성서의 텍스트 연구에서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오늘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텍스트는 원초적인 텍스트가 사라진 후에도 살아 남은 것이므로 그 텍스트는 문자적 의미 또는 사전학적 의미보다 깊은 본래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하여야 할 것은, 성서의 본문을 오늘 우리의 정황 속으로 침몰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요즘에 와서 특히 구약의 출애굽기와 아모스서를 어느 특정 지역의 정치 문제와 연관하여 정치와 경제적인 해방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때 설혹 그러한 무리한 해석에 대하여 동정과 이해가 따르지 않는 배는 아니나 역시 원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상황 논리에 빠진 오류이다.

오늘의 인권 운동과 식민지의 저항운동에서 분출한 해방 사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무리 상술한 정황과 유사하다고 해도, 성서 정전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우리의 오늘의 감정이 어떠한지 간에 성서의 메시지가 제기하는 도전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 밖에서 와야 하며, 시간과 공간에 고정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의 음성이어야 한다. 이 원초성과 초월성을 상실하면 성서 해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오늘의 교회가 성서의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서의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항시 창조적 긴장 관계에 있어야 과거에 그러했던 그대로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다.

#### 4. 성서 해석과 문화의 변화

성서 해석의 시도에서 모든 성실한 신앙인에게 끝없는 당혹은 왜 성서의 권위를 이해하고 성서를 바르게 사용하려고 한 학문이 시대마다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는 변화의 양상 때문이다.

4.1. 그러한 변화를 푸는 가장 오래된 설명은 19세기 초에 등장한 것으로서 오늘의 과학적 지식과 방법이 과거보다 우수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고 그러한 근거 위에서 해석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발전의 양상이며 전

진하여 완전의 표적을 지향한다고 하는 단순한 설명이다.

이것을 전대적(前代的) 과학적 모델이라고 한다. 새로운 어학 연구적 발전과 고고학적 발견과 그리고 사회 및 심리학적 요인의 탐구 등이 새로운 학문적인 도구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러한 객관적인 이유가 아닌 더 큰 주관적인 선택이라는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다.

4.2. 이러한 비객관적인 해석의 안목을 토마스 쿤 교수는 연구와 형의 선택에서 오는 지식이라고 지적하였다<sup>9)</sup>.

지식의 형의 변화가 코페르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온 것은 이미 고전적 변화이며 현금도 다양한 형의 구조적 지식은 끊임없이 취사선택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형들은 직접적으로는 어느 것도 준비 단계와 난숙기적 단계로 발전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4.3. 세 번째의 탐구의 각도는 인간주의에서 출발한다.

물론 당초는 19세기 초의 독일 철학 정신이 지식은 주관적인 관점일 뿐 아니라 인간 지성이 지식의 척도로 보아야 한다고 출발한 것이었으나 그러한 영향의 확대는 지대한 것이어서 모든 부문의 지식이 해당되었다. 이러한 휴머니즘에 의한 성서 연구의 영향도 현저하여 한스 프라이의 말에 의하면, 지금까지 거의 1500여 년 간 성서가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으나 계몽시대 이후부터는 세상이 성서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하였다<sup>10)</sup>.

## 5. 맺는 말

---

9) Thomas S Kuhn은 그의 유명한 저서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에서 인간의 지식 탐구에는 비객관적인 연구 과정인 지식구조형의 변화와 선택이 중요한 지식의 기본 틀이라고 지적하였다(*Theology Today*, July 1997, p.201)

10) Brevard S. Childs, "Interpreting the Bible amid Cultural Change," *Theology Today*, July 1997, p.201

아무리 성실한 탐구라고 할지라도, 성서 연구의 일정한 방향은 성서가 존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서의 대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만의 전제가 존재한 오리겐(c. 185-c. 254) 이전의, 다른 주석이 전혀 권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서 그후 다양한 해석적 정신이 생산해 낸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성서 연구가 어떤 것은 경건한 학문으로 어떤 것은 그 시대의 철학과 접목이 된, 결국은 인간 정신이 주도하는 찬연한 성서 해석의 계보를 형성한다.

필자는 이쯤에서 1997, 7월호 「테올로지 투데이」에 실린 과거 30 년간을 성서 해석의 역사를 예일대학교 신학부에서 강의한 차일즈의 결론 부분을 인용하여 나의 맺는 말로 삼으려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성서 해석의 다양한 변화가 문화적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이론은 사실 피상적인 구실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이해의 신학의 변화에서 온 것이라고 명쾌히 단언하였다. 결국은 살아 계신 두려운 하나님께 향한 경건한 하나님 신앙이 그늘지면 그의 성서 해석은 인간 정신의 기교만이 빛을 발하는 탐구가 되고 만다. 차일즈 교수는 그의 글을 파스칼의 절구로 결론 내린다. 필자는 이 파스칼의 유명한 기도가 그가 죽은 후에 남루한 외투 안에 실로 누빈 일편의 피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글에서 처음 알았다.

“불.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 철학자와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

그리고는 파스칼은 이어 요한복음 17장 3절로 끝낸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sup>11)</sup>

## 참고문헌

「신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1995  
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편, 「성경원문연구」 창간호(1997 8월),

11) Brevard S. Childs, *Interpreting The Bible amid Cultural Change*. Theology Today, July, 1997., p. 200f.

Gerald Bray, *Biblical Interpretation, Past and Present*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Bruce M. Metzger, Michael D. Coogan., ed., *The Oxford Companion to the Bible.*